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과메기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과메기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과메기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과메기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청어나 콩치를 차게 말린 것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관목이	-	-	-
과메기	-	-	-
과미기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청어나 콩치를 차게 말린 것

🕒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5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과메기'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청어나 콩치를 차게 말린 것

☞ 과메기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과메기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관목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과메기 사전 표기 요약	—	—	—	—	—	●→
과미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관메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관목이
19세기20세기
- 과메기

20세기현재

- 과미기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관목이, 과미기, 관메기, 과메기

↳ 과메기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변화

‘과메기’의 옛말인 ‘관목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20세기에 ‘관목이’, ‘관메기’, ‘과메기’, ‘과미기’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과메기’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과메기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관목이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관목이

📖 출처 1880 한불사전 179

용례 01

66 문헌 용례

관목이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과미기, 관메기, 관목이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과미기, 관메기, 관목이, 과메기

📖 출처 1939 동아일보 5월 9일 7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慶尙北道에서는 素乾한 靑魚를 『과미기』라고 稱하여 地方 特産으로 珍重示하는 水産物이다.

📖 현대어 풀이

경상북도에서는 그대로 말린 청어를 ‘과미기’라고 칭하여 지방 특산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수산물이다.

📖 출처 1971 경향신문 3월18일 5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관메기 신라 서울 경주 때부터의 명물. 재료는 청어로 지금은 조류가 바뀐 탓인지 이름만 남고 남한에서는 보기 힘들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75 동아일보 12월 24일 5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과미기 또는 관목이(경상도에서 말린 청어) 등으로 불리는데.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95 한겨레 1월 5일 9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요즘 동해안 지역에선 겨울철 토속 별미 식품인 과메기가 지나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과메기에 관한 주석

‘과메기’의 어원에 관해서는 ‘꼬아 매단 생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는 동사 ‘꼬다’의 활용형 ‘꼬아’에서 오고 ‘메’는 동사 ‘매다’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목이’와 같은 예가 있음을 보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다.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견해로는 ‘관목(貫目)’이라는 말에 접미사 ‘-이’가 붙어 ‘관모기’가 되고 이것이 변해 ‘과메기’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왜 ‘관목(貫目)’이라는 말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전해지는 설이 있다. 원래 과메기는 짚으로 엮어 그늘에서 말려 먹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를 보러 가던 어떤 선비가 바닷가의 언덕 위 나뭇가지에 눈이 꿰인 채로 청어가 얼말라 있는 것을 먹어 보게 되었다. 그 맛을 잊을 수 없던 선비는 겨울마다 그 방식으로 말려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눈을 꿰었다는 의미의 ‘貫目’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눈을 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貫目’이라는 말에 이끌려 만들어진 설일 가능성이 높다.

과메기의 보충 설명

‘과메기’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산물이다. 조선 시대 문헌인 《승정원일기》 등에 ‘貫目(관목)’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이것은 말린 청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貫目’이 과메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조선 시대부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경상북도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던 과메기는 199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겨울이면 사람들이 찾는 별미가 되었다.##19세기 문헌인 《국한회어》에는 ‘관목어’가, 《한영자전》에는 ‘관목’이 나타난다. [예] 관목어 [貫目魚] <1896 국한회어 곤:52> [예] 관목 <1897 한영자전 PART1:253>

과메기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이태원 2003 《현산어보를 찾아서 3》 청어람미디어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 최헌섭/박태성 2017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신우해이어보》 경상대학교출판부
- 이대화 2019 ‘구룡포 과메기’의 역사문화적 변천 - 재료와 제조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7
- 김무림 2020 《국어 어원 사전》 지식과교양
- 정혜경 2021 《바다음식의 인문학》 따비
- 조항범 2022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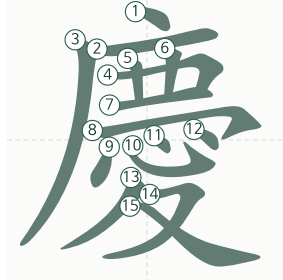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과메기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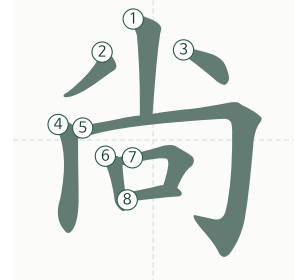
뜻·음 경사 경
총 15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慶/

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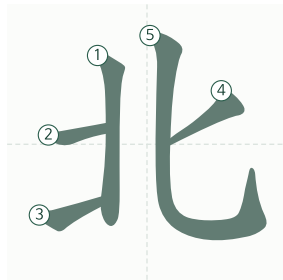
뜻·음 오히려 상
총 8획 · 부수 小



hanja.wordrow.kr/한자/尙/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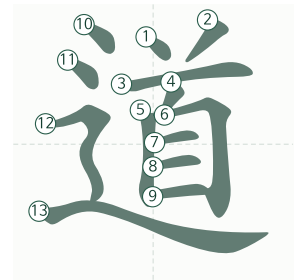
뜻·음 북녘 북 / 달아날 배
총 5획 · 부수 匕



hanja.wordrow.kr/한자/北/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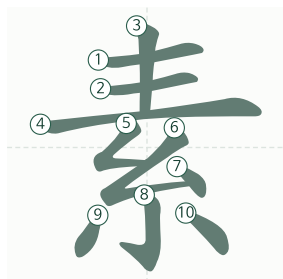
뜻·음 길 도
총 13획 · 부수 辵



hanja.wordrow.kr/한자/道/

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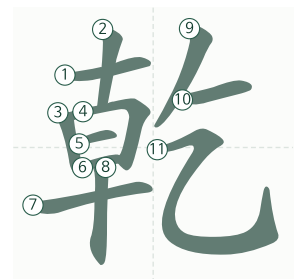
뜻·음 본디·흰 [白] 소
총 10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素/

乾

뜻·음 하늘·마를 건
총 11획 · 부수 乙



hanja.wordrow.kr/한자/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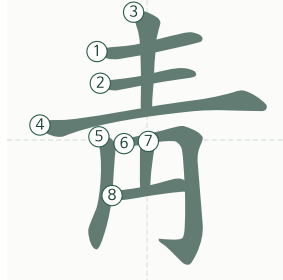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青

뜻·음 푸를 청

총 8획 · 부수 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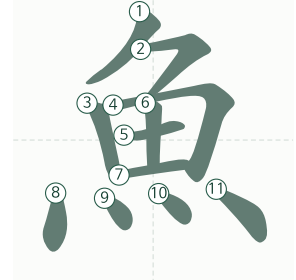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靑/

魚

뜻·음 고기·물고기 어

총 11획 · 부수 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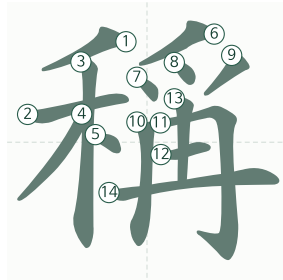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魚/

稱

뜻·음 일컬을 칭

총 14획 · 부수 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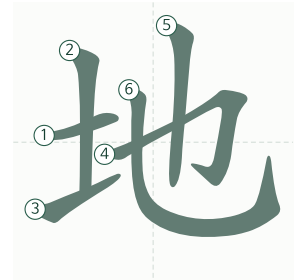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稱/

地

뜻·음 따 지

총 6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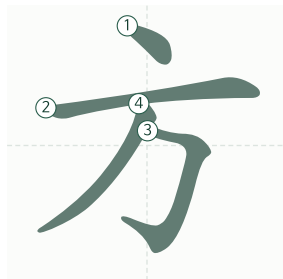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地/

方

뜻·음 모[稜] 방

총 4획 · 부수 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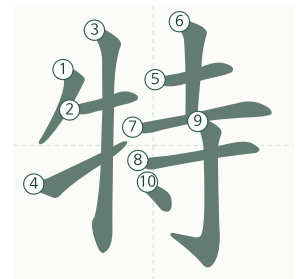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方/

特

뜻·음 특별할 특

총 10획 · 부수 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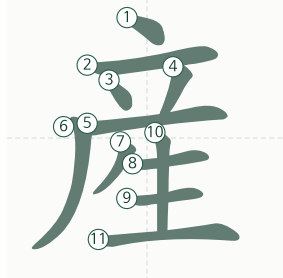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特/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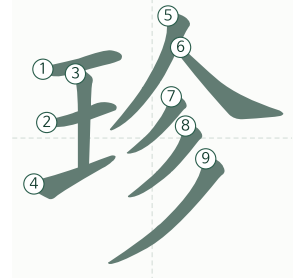
뜻·음 낳을 산
총 11획 · 부수 生



hanja.wordrow.kr/한자/産/

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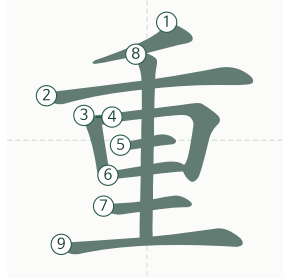
뜻·음 보배 진
총 9획 · 부수 玉



hanja.wordrow.kr/한자/珍/

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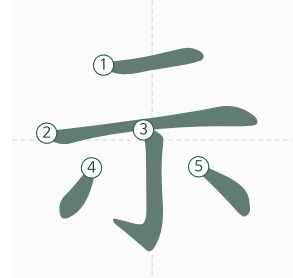
뜻·음 무거울 중
총 9획 · 부수 里



hanja.wordrow.kr/한자/重/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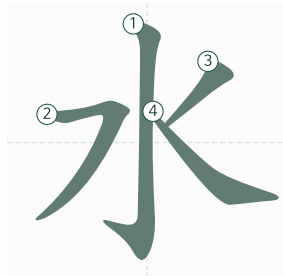
뜻·음 보일 시
총 5획 · 부수 示



hanja.wordrow.kr/한자/示/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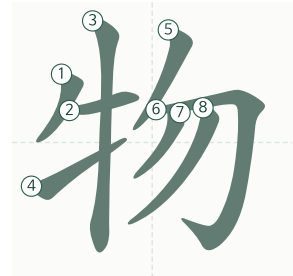
뜻·음 물 수
총 4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水/

物

뜻·음 물건 물
총 8획 · 부수 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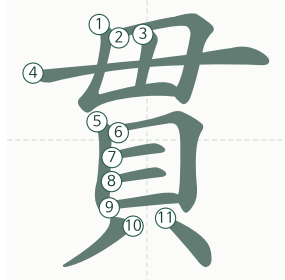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物/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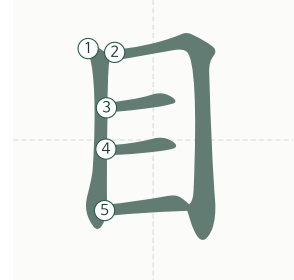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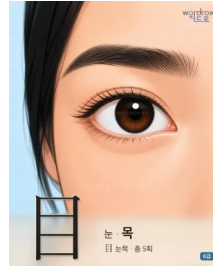
뜻·음 꿰 관
총 11획 · 부수 貝



hanja.wordrow.kr/한자/貫/

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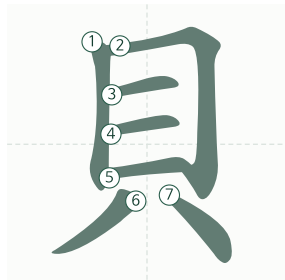
뜻·음 눈 목
총 5획 · 부수 目



hanja.wordrow.kr/한자/目/

貝

뜻·음 조개 패
총 7획 · 부수 貝



hanja.wordrow.kr/한자/貝/